

# 협 회 동 정

## 제도과

### LAN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4월 28일 협회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등 13명의 LAN 관련업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LAN 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현재 국내 LAN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N 관련장비 등의 국산화율이 지극히 저조해 관련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 국가표준화정책, LAN 설치자금 운용, LAN 관련 W/G 구성 및 운영, 기술개발, 기술인력 확보, 정부지원정책 등 현안문제들이 격의없이 논의됐다.

국가표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석자가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정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 현재 사용중인 다양한 컴퓨터환경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기본기술에 대한 표준보다 어플리케이션 S/W 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LAN 설치자금의 운용은 LAN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자금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LAN 관련 W/G 구성 및 운영은 우리협회 산하에 설치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은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지원보다 시장수요 확대시책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그리고 LAN 관련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실질적 교육과정 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회의에서 우리협회는 W/G 을 통해 LAN 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련업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담당자: 전성태)



LAN 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 회의에서는 LAN 설치자금 운용, 기술개발 등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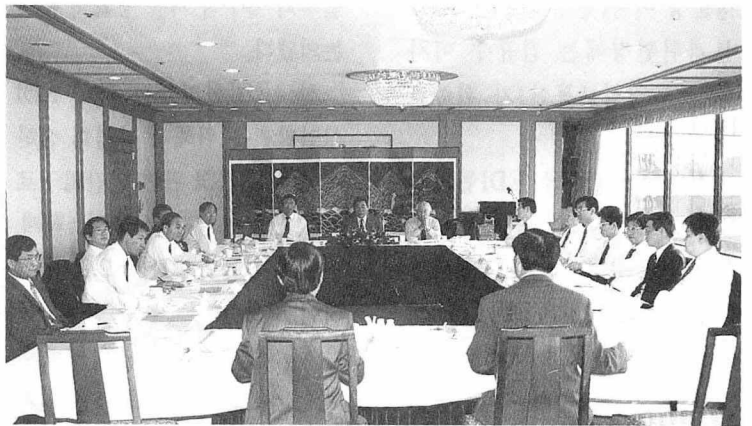
## 통신사업자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우리협회는 통신사업자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지난 4월 29일, 30일 양일간 수원 그린피아 리조트에서 30여명의 정보통신 관련 업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제도적 규제 사항 및 개선방향 ▲신규서비스 등 사업범위 확대방향 ▲바람직한 요금정책 방향 ▲공정경쟁 확보방안 ▲상호접속에 따르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DB, EDI, SI, S/W, H/W 등 산업부문별 육성방안 ▲UR협상에 대한 공동 대처 및 협력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적 역할분담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형식으로 토의됐다.

이와 함께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망간 상호접속과 회선장애 처리문제 등은 5월중 개최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우리협회가 통신사업자간의 발전적 역할분담 등을 통한 상호이익 추구,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공동대체 방안 모색,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장기 발전모델 제시 등을 위해 금년부터 각 업체의 임원과 실무자로 구성된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운영



제32회 이사회에서는 한국EDI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승인됐다.

기로 함에 따라 개최됐다. 이 통신사업자협의회에서는 공정경쟁, 상호접속 등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과 함께 국내 정보통신 사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전성태)

## 기획예산부

### 제32회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는 제32회 이사회를 지난 4월 7일 상의클럽 S룸에서 정장호 회장 외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이사회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정책동향 보고, CALS 관련 강연(주제: 한국에서의 CALS 구현방향, 연사: 국방부 김철환 대령) 등이 있었다. 또한 국내 EDI 산업발전을 위해 우리협회

산하 자율적인 추진기구로 발족한 한국 EDI협회의 운영규정 승인건과 코아소프트웨어의 회원 가입 승인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담당자: 권기영)

## 조사연구부

### 한국EDI협의회 본격 활동 개시

한국EDI협의회 제2차 회의가 지난 4월 13일 김대규 위원장의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에이텔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세칙(관련기사 26쪽 참조), 분과위원장 지명위촉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제도분과위원장에는 김종환 이사(삼성데이터시스템), 조사분과위원장에는 김동규 교수(아주대), 국제협력분과위원장에는

정문성 이사(현대전자), CALS  
분과위원장에는 김규수 이사  
(한국무역정보통신)가 위촉됐  
다.

이와 함께 한국 EDI협의회  
영문명칭 및 약칭, 분과위원회  
활동일정, 사업예산 등도 협의됐  
다. 이에 영문명칭은 EDI Council  
of Korea(약칭 EDI-Kor)로 하기  
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5월 중순  
까지 구성을 완료하여 6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EWI, EDIFACT 등 각국의 EDI  
단체 및 기구에 EDI-Kor의 발족  
홍보, 우리협회 산하 한국EDI

협의회 사무국 기능 명확화 등이  
논의됐다.

한국EDI협의회는 국내 EDI  
산업발전을 위해 우리협회 산하  
에 설치된 EDI 관련 민간기구로  
EDI 관련사업자, 사용자, 학계,  
연구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무활동  
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  
다. 분과위원회는 제도분과위원회  
(서비스, 요금, 법, 제도, 정책  
등에 관한 활동), 조사연구분과위  
원회(표준화, 기술, 시장, 이용실  
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분과위원회(교

육, 홍보, 세미나, 전시회 개최  
및 국제활동), CALS분과위원회  
(CALs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  
회는 향후 EC, CALS 등 EDI  
와 관련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위원회 및 기관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표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EDI시장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영인의 인식부족 및 취약  
한 EDI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제 구축의 디딤  
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담당자  
: 박 민)

## 신 간 안 내

### 정보통신네트웍 구축기술 지침서

국가 경제의 핵심구조로 인식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간의 연동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노하우는 정보화의 촉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서는 기간망, 부가통신망, 이동통신망, UNIX Internet망, OSI망, B-ISDN망을 비롯해 망에 대한 제품의 인증제도와 관련법규 등 우리나라의 통신망 현황은 물론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통신망 구축방향 설정과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기통신망을 이해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지음, 569쪽, 20,000원)